

# 동중부 KCLC Newsletter



##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 詩 / 한 강

하루가 끝나면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둔다  
저녁이 식기 전에  
나는 퇴근을 한다

저녁은 서랍 안에서  
식어가고 있지만  
나는 퇴근을 한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서랍에 넣어 둔 저녁은  
아직도 따뜻하다  
나는 퇴근을 한다  
저녁이 식기 전에

퇴근을 하면서  
저녁을 꺼내어  
따뜻한 한 끼를 먹는다  
하루의 끝에서

퇴근을 하고  
서랍에 넣어 둔 저녁을 꺼내면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나는 퇴근을 한다

퇴근을 하면서  
저녁을 꺼내어

따뜻한 한 끼를 먹는다  
하루의 끝에서

## CLC in USA 소식

- 2025년도 예산안 승인과 회비 현황 발표
- 현재 CLC in USA 회원수는 1236명으로 2024년도 회비 납부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72%
- CLC in USA 년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약 회원 (또는 서약을 하지 않은 5년 이상 회원): 80불
  - 비서약 회원 (또는 서약을 하지 않은 5년 이하 회원): 40불
- 총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앞으로 5년간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과 실천해야 할 to do list 등을 정리하기 위해 Exco 와 NCC 에서 task force team 을 만들 예정
- 2025년도 NCC 연례회의는 애리조나 Scottsdale에서 10월 30일에서 11월 2일 열릴 계획
- 2025년 1월 부터 내년 7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CLC-USA 총무와 Member at Large 임원 선출을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될 예정
- 16명의 NCC 대표, 1명의 Ex-Co 총 17명의 투표에 의해 Christine Cichello CLC in USA 차기의장으로 선출

## NKCLC 소식

- 19번 피정을 위한 영신 수련 교육인 길벗 프로그램 3차 진행중
- NKCLC 주최 가이드 교육 진행중 (전 회원에게 open)
- 클러스터 공동체 보스톤 지역에서 다섯 분이 첫 서약
- 클러스터 공동체 달라스 지역에서 회원 두 분이 종신 서약  
첫서약자 4명 / 갱신서약자 8명 / 종신서약자 2명

## 동중부 소식

- 2024년도 동중부 서약식이 성 정 바오로 성당에서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의 집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서약자: 3명, 유기서약: 13명)
- 2025년도 지원기 시작 (봉사자: 김선미 카타리나)
- 2025년도 새 양성부 코디로 용복순 소화 데레사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 지난 4년동안 동중부 양성부를 위해 코디로 수고하신 박 유스티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팀 소식



평화팀은 차세대 지원기를 마치고  
평화팀에 조인하신 홍지희 엘리사벳 자매님,  
데레사 팀가이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 CLC in USA 새공동체 Ignis Ministry를 소개합니다

CLC in USA는 지난해 연말에 Vietnam 동한공동체의 청년 사도직인 Ignis Ministry (차세대그룹)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식별이 있었습니다.

향후 3년간 CLC in USA 공동체는 Ignis 프로그램에  
매년 \$5000 재정지원을 해서 이 청년사도직이 CLC in USA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 협조하면서  
고령화 되어가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Ignis 프로그램이 focus 되어질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커뮤니케이션
2. 파견
3. Connection (연대감)

회원들의 관심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CLC USA Ignis Proposal.pdf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CLC USA Ignis Proposal.pdf

## 2024 동중부 서약식 Photo Gallery



첫 서약 회원들과 함께



유기 서약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친교 시간

클러스터 공동체 Photo Gallery



보스턴 공동체 첫 서약 회원들



달라스 공동체 첫서약 & 유기서약 회원들



달라스 공동체 종신서약 회원들



**마태오 17,10-13:  
그레고리안 대학 리더십 석사 학생들과  
성탄 감사미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신학과 철학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과르디니 (Romano Guardini) 주교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탈리아인이었지만 외교관이었던 부친때문에 독일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꿇던 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꿈에서 그분은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말’ (word)을 받고 태어난다는 메시지가 핵심인 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푸는 비밀번호 (password)와도 같은 말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은 이 말의 결과이고, 이 말은 세월과 함께 점점 뚜렷해지고 그 의미가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며 살아야 하고, 언젠가는 이를 근거로 각자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원초적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육화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과제는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그 유일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도록 그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그 분의 말씀을 표현하는가는 커다란 소명으로 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가 받은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있는가요? 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더욱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까지 고난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가까이 따랐던 열두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서는 높은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 사건을 목격하고 막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마태17,10) 바로 눈앞에서 메시아를 만나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의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율법 학자들의 말에 더 솔깃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표면만을 ‘아는 것’이지, 그 분의 특별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위험에 처합니다. 곧,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은 30년 전부터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저 자라는 걸 봤던 그 청년,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일 뿐입니다. 겉모습에만 머물러 예수님의 새로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는 확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확신”의 꼬리표는 우리는 더 깊은 세상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섰지만 세상의 문법에 쉽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습관의 편안함과 편견의 황포에 쉽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느님이 매일 주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새로움과 경의의 신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우리의 확신의 틀에서 예수님을 질식사시키지 않습니까? 강생의 신비를 거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전히 잡아둘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다고 하는 무지의 확신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비록 뚜렷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한 깊은 자각과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뜯구름잡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불확실하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은총의 길위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위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숨구멍은 바로 우리의 불확실한 삶을 현실을 기꺼이 안고 걸어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려갑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과 대화를 합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고향사람처럼 예수님의 걸면만을 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이방인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돌아오지 않으실까봐 두렵습니다 《Timeo Dominum transeuntem et non revertentem》.”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왜 두렵다고 합니까? 그분의 현존을, 그분이 주신 선물을 놓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그의 생각, 말과, 행위안에만 온전히 몰입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에 몰입되는 것은 주님이 현존할 수 없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의 이벤트 안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벤트 (event)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의 루틴 (routine)속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에 하느님의 무한하심이 작은 아기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 하느님의 아드님이 목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몸과 말과 행동으로 말한다는 것을 온 정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말씀의 거울을 매일 닦고 들여다보면서 살아갑시다.

## 마태오19,3-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11)**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관점은 혼인의 해소불가에 대한 교리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만나게 된다.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가능한가? (3)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불륜’이라는 한가지 이유를 든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사안. 그런데 그것외에 다른 문제로 아내를 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 가정 생활에서 아내가 갖는 남편이 갖는 그 수많은 결점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혼인생활중에 부부가 서로 경험하는 상대방의 결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들린다. 즉 그 수 많은 결점을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보라는 것이다. 이 완고함에 대한 도전은 복음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킨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마태 7,3)

그러면 그 완고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결점을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에 예수님의 처방은 분명하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11)

우리 이웃의 결점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간을 우리안에 크게 할 것이다. 그런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자.

요한 12,24-26

“밀알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24.26)

오늘 복음에서 세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 죽기, 따르기, 그리고 섬기기. 이 세가지 움직임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가지 움직임이다.

죽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복음을 보면 죽는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나를 안전하게 했던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지 못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씨앗은 박물관에서 발견된다. 혹은 몇 천년전의 날알들이 썩지 않고서 그대로 발견되어 뉴스의 한켠을 차지한다. 그 씨앗은 오랜 시간의 세월의 무게와 땅의 열기같은 변화의 힘을 거부하였기에 껍질의 색깔만 변하고 내면의 알곡은 그대로 있었던 결과이다. 그 씨앗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소명인 더 많은 씨앗을 만들기 보다는 전시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있어야 할 장소에서 있지 못하는 것으로 전략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느님의 말씀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박물관에 있는 썩지 않은 알곡처럼 신앙의 역사에서 생명이 없는 미라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인 삶은 오늘 기념하는 라우렌시오와 같은 성인들은 이미 육체적인 생명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안에서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우리와 지금도 대화를 나눈다. 그들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계속해서 불러들인다.

따르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을 응시하는 것에서 가능하게 된다. 응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의 눈에 담아둔다는 담대한 열망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조금이라도 따르고자 했던 이냐시오 성인의 희망을 생각한다 (영신수련 104번).

우리 자신에게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된다. 주님을 앞장서서 갈수는 없다. 오직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기위해서는 길을 나선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섬기기: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계획에 죽고 예수님을 응시하는 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선물이 주어진다. ‘섬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어원은 ‘수행원이 되다, 종이 되다, 길들여지다, 봉사하다, 기다리다’는 뜻을 가진 동사 디아코네오 (διακονέω)이다.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식탁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부제님들을 deacon의 어원도 여기에서 유래. 그러나 다른 의미는 ‘중재자(go-between)’의 의미와 ‘메신저(messenger)’의 의미가 함축. 즉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명을 상기시킨다.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의 독점적이며, 선택된 유일무이한 디아코노스였지만, 그의 디아코노스로서의 사명은 제자들과 교회위에 승계된다. 제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느님 간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디아코노스 예수의 위임명령을 받음으로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그렇기에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섬김과 봉사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우리도 하느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사명으로 우리도 메신저로 초대받고 있음을 의미.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배달사고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과거의 습관의 삶에 사망선고를 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설 때에야 먼지를 뒤집어쓰면서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